

News

9일만에 4000억 줄어든 신용대출... "문턱 너무 높아졌다" 불만 폭주

한국경제

주식시장 빛투가 한풀 꺾이고 가계대출의 급등세를 우려하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금리를 높인 결과 15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2월 9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34조7883억원으로 전달 말에 비해 4396억원 줄어

코픽스 소폭 하락... 일부 은행 주담대 금리 '변동'

한국금융신문

은행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인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해 일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도 변동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취급한 예금, 적금, 은행채 등 수신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

물고 튼 키코 분쟁 자율조정, 은행 참여 이어질까

연합뉴스

금감원이 은행 6곳(신한, 우리, 산업, 씨티은행 등)의 불완전판매로 피해 본 기업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분쟁조정안을 냈지만 우리은행만 수용 한국씨티·신한·DGB대구은행이 일부 키코(KIKO)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을 결정하면서 다른 은행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케이뱅크 6000억 증자 검토에 PE들 '글썸'...가격 시각차 커

인베스트조선

케이뱅크가 지난해 4000억원이 이어 6000억원 안팎의 추가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여러 PEF들이 흥미를 보이는 이유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증권사 공매도로 7년간 3500억 벌었다...수익의 70% 이상 외국계 차지

조선비즈

증권회사들이 공매도로 매년 400~70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수수료 수입은 3500억원이 넘었다.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삼성증권의 공매도 수수료 수입 가장 커

진격의 토스증권, 100억원 유상증자...자본확충 순항

파이낸셜뉴스

토스증권이 정보기술(IT) 시스템 투자와 인력 충원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선다.

현대해상, 이달 자회사형 GA 설립 신고...4월 영업 개시

한국금융신문

현대해상의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대해상은 자회사형 GA의 사명을 '마이금융파트너'로 정했다. 현대해상은 이달 말 금융당국에 판매자회사 설립 신고를 마친 뒤 이르면 4월부터 영업에 들어갈 계획

삼성화재·DB손보 등 보험사, 커지는 해외 재보험시장 뚫기 '고심'

서울경제

15일 손해보험협회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의 재보험료 수익 중 해외부문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화재의 경우해외 재보험시장 공략에 가장 적극적. 2012년에 싱가포르에 재보험사 '삼성리'를 출범하면서 해외 재보험시장 진출에 강한 의지 드러내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